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6. 14.(일) 12:00
(지면) 2026. 6. 15.(월) 조간

중앙아시아와 3년의 동행, 더 단단해지는 한국형 재난관리 역량 수출

- 중앙아시아 5개국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3차년도 초청연수 운영(6.15.~26.)
- 한국형 ICT 재난관리 경험 공유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기반 강화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월 15일(월)부터 26일(금)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* 재난관리 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초청해 ‘중앙아시아 ICT 활용 재난관리 역량강화’ 3차년도 연수를 실시한다.

*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공화국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

올해는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연수 과정의 마지막 회차로, 지진·산사태·홍수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>> 각국 맞춤형 재난관리 실행계획 확정

이번 연수를 통해 각 참가국은 ICT 기반 재난관리 실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. 그 과정에서 지난 1~2차 연수에서 습득한 ▲홍수·급경사지·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▲재난 대응 훈련 체계 ▲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등 우리나라의 선진 재난관리 경험을 바탕으로, 참가국 스스로가 자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.

>> 한국 재난관리 핵심기관 현장견학

연수과정은 이론 강의와 현장 견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구성했다.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전반과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에 관한

강의를 듣고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강홍수통제소 등 국내 재난관리 핵심 기관을 직접 방문해 첨단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한 현장의 생생한 운영 실태를 직접 체험한다.

아울러, 우리나라에서 적용 중인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져, 참가자들이 귀국 후 자국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.

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“지난 3년에 걸친 연수과정을 통해,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가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상국 (041-840-6411)
		담당자	주무관	현지민 (041-840-6423)

